

소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계주 우승을 조계
종단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

혼신을 다한 역주에는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한 노
력과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의지하는 향기로운 모
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.

온 국민이 함께 환호하고 감동하는 것은 많은 사
람들이 여러분의 분발을 통해서 희망을 찾을 수 있
었기 때문입니다.

언제나처럼 마음까지 건강하기를 축원하며, 앞
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한결같이 노력해
주시기를 바랍니다.

불기2558(2014)년 2월 19일
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